

## 영적 돌봄의 접근지침과 그 실제

김 성 환\*

### 1. 용어의 정의

- 영적(Spirituality) ; 인간 삶의 궁극적인 것, 즉 인간 존재의 의미, 사랑 등을 포함한 인간 존재의 총체적인 차원이며 인간존재에 활기를 불러 일으켜 주는 에너지의 근원 근원이다. 여기에는 육체적, 정서적, 사회적 그리고 영적인 것을 포함함과 동시에 현재와 내세를 포괄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 신앙 ; 절대자 품안에 있는 마음, 그래서 자기의 전 존재를 그분에게 의탁하고 그분과 함께 인생을 살아가는 결단과 의지.

영적(Spirituality)이라는 용어 해설.

우리는 '영'(靈)이라는 용어를 접하게 될 때 일반적으로 육체와 대치개념으로서 '죽음 후의 저 세상'을 연상하게 된다. 따라서 종교인들의 관심 대상이 되어 있다. 그래서 그들은 죽음에 임박한 환자를 돌보는 일에 참여하여 '죽은 후 영혼이 돌아가게 되는 내세에 안내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그들은 각자가 신봉하는 종교적 내세관을 소개하거나 그 내세를 향한 마음을 갖게 함으로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고통의 축(軸)을 죽음 저편에 있는 [좋은 곳]으로 향하게 하는 방편으로 이용하고 있다.

“영적”이라는 개념은 신앙 배경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는데 오늘은 기독교의 입장을 가지고 종래의 개념 보다는 좀더 폭넓은 시야를 가지고 이해해 보고자 한다.

기독교의 입장에서의 영(靈)은 구약성서 '루아흐'(ruah)에서의 번역이다. “바람(wind)” “숨결(breath)”이라는 뜻이다. 민영진은 그것을 ‘생명’ 또는 ‘인간 삶의 전체’라고 해석을 붙였다.(민영진, “구약성서의 영(靈) 이해”, 김성재 편, 성령과 영성, 한국신학연구소, 1999.3, pp.224-234) 즉 “숨결”은 인간이 살아가면서 시시각각으로 느끼는 슬픔, 분노, 욕구를 나타내는 [감정]이며 “바람”은 힘으로 상징되는 인간의 ‘의지’와 [용기]등의 표현으로 설명했다. 창조주는 인간을 ‘루아흐’로 만들어 놓고 매우 만족스러워서 “심히 좋았더라”는 최상급의 표현을 했다. 이것을 윌킨슨은 [샬롬](Shalom)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샬롬]은 완전하고(completeness), 온전하고(wholeness), 안녕(wellbeing)의 상태이다.(J. Wilkinson, Health and Healing, p.5) 둥근 한 원(圓)안에 통합된 가장 평안한 상태를 말한다. 또한 그 통합은 그 안에서 인간 조건이 충만하게 구비되어 있어서 어느 하나도 부족함이 없는 넘치는 상태를 말한다. 즉 전체성(Wholistic)이다. 이 전체성은 인간 삶의 모든 차원으로서 육체적, 정서적, 사회

\* 목사, 세브란스호스피스

적 그리고 영적인 것을 포함함과 동시에 현재와 내세를 포괄적으로 일컫는다. 이 모든 차원이 [샬롬]으로 지속되기를 창조주는 바라신다. 이것을 의학계에서는 양질의 삶(Quality of Life), 신학적으로는 [구원]이라고 한다. 이러한 창조주의 뜻을 이루려고 호스피스는 부름 받았다고 이해하고 싶다.

2. 전제(前提)

인간은 죽음 앞에서 두려움을 느낀다. 임종환자들은 죽음의 두려움으로 인해서 양질의 삶을 살지 못한다. 영적 돌봄은 그들의 양질의 죽음 마지막 장애 요인을 제거해 줌으로서 두려움이 없는 편안하고 아름다운 죽음을 맞이할 수 있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창조주는 자기의 최상의 작품인 인간이 현재는 물론이고 내세에 있어서도 [샬롬](Shalom)으로 살아가도록 희망하고 있으나 인간에게는 죽음이라는 장애 요인이 가로 놓여 있다. 죽음을 맞이하는 환자에게 이 장애요인이 제거될 수만 있다면 현재에서는 물론이고 죽음이라는 두려움의 언덕을 품위 있게 넘어 저 세상에서 까지도 [샬롬](Shalom), 양질의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3. 영적 돌봄의 전략

죽음의 두려움은 전적으로 개개인의 주관적인 감정이다. 각 개인의 삶의 자세(마음먹기) 여하에 따라 두려움은 전혀 다르게 느낄 수 있다. 그런데 주관적인 자세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신앙이라는 자원밖에 없다고 본다. 그러면 신앙이란 무엇인가? “절대자와의 올바른 관계”(M. Luther), “인간이 절대자의 품안에 있음을 발견하는 상태”, “죽음의 순간까지 또한 그 이후의 모든 삶에 까지 그분과 함께 걷는 것”라고 도날도오르는 말한다.(Donal Dorr, 영성과 정의, 분도출판사, 1990, 황종열 역, pp.18). ‘품안에서 있음’은 자기의 전 존재를 그분에게 맡기는 결단이고 그로 인해 얻어지는 [샬롬]의 삶을 말한다.

그런데 문제는 “절대자 품안에 있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다. 종교를 접해 보지 못한 일반인들에게는 이해하기 힘든 말이다. 이 말을 우리 일반인에게도 피부에 느낌이 오도록 설명해주는 분이 있다. 브리스터(미국 서남침례교신학대학 목회상담학 교수)

는 “기독교 신앙은 삶의 스타일(life-style)이며 실존적 자세이지 단순한 신조 체계(belief system)가 아니다”(C. W. Brister, The promise of counseling, Harper & Row, 1978, p.12)고 했다.

삶의 스타일

- 긍정적인 삶의 스타일(positive life-style);신앙
- 부정적인 삶의 스타일(negative life-style);불신앙

긍정적인 삶의 스타일 (신앙)	부정적인 삶의 스타일 (불신앙)
- 긍정/인정(앞에 있는 존재를)	- 부정/불인정
- 희망적(밝음)	- 절망적(어두움)
- 미래 지향적	- 과거 지향적
- 개방적	- 폐쇄적
- 수용적	- 배타적 /공격적
- 책임적	- 책임전가
- 용서와 사랑	- 정죄와 미움
- 감사와 여유	- 불평과 경직
- 기쁨과 평화	- 슬픔과 갈등
- 인내와 절제	- 짜증과 낭비
- 진실과 선행	- 가식과 악행

여기에서 신앙은 긍정적인 삶의 스타일을 말한다. 따라서 영적 돌봄의 시작은 바로 ‘불신앙의 상태’인 부정적인 삶의 스타일을 ‘신앙의 상태’인 긍정적인 삶의 스타일로 바꾸어 놓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환자들은 부정적인 마음 발의 상태이다. 그래서 그들은 우선 자기 질환에 대해 절망, 좌절하며 과거 건강했을 때를 회상하며 발병의 책임을 조상의 탓, 혹은 다른 사람의 잘못으로 돌리고 짜증과 불평불만,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치료거부 상태로까지 간다.

또한 임종환자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아울러, 통증도 문제가 된다. 통증도 전적으로 주관적인 것이기 때문에 삶의 스타일에 따라 통증의 느낌은 개인차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다. 객관적으로 측정된 동일한 통증이지만 주관적인 느낌은 큰 차이가 있다.

4. 영적 진단- 삶의 스타일에 의한 척도(S. A. Scale by life style)

1) Care giver의 관찰에 의한 진단

(긍정적)신앙	(부정적)불신앙
환자의 삶의 스타일이	환자의 삶의 스타일이
얼굴에 미소? 10 +-----5-----+ 0	썩그린 얼굴인가?
희망적인가? 10 +-----5-----+ 0	절망적인가?
미래지향적인가? 10 +-----5-----+ 0	과거지향적인가?
개방적인가? 10 +-----5-----+ 0	폐쇄적인가?
수용적인가? 10 +-----5-----+ 0	배타적인가?
책임적인가? 10 +-----5-----+ 0	책임전가하는가?
감사의 마음? 10 +-----5-----+ 0	불평하는가?
기쁨의 마음? 10 +-----5-----+ 0	짜증내는가?
평화스러운가? 10 +-----5-----+ 0	갈등하고 있는가?
분노의 노출? 10 +-----5-----+ 0	분노의 마음?
타협 단계 극복? 10 +-----5-----+ 0	타협하고 있는가?
우울의 정도? 10 +-----5-----+ 0	우울의 정도?
수용(항복) 여부? 10 +-----5-----+ 0	자포자기?
타인 배려 마음? 10 +-----5-----+ 0	자기 중심적
의기소침 여부? 10 +-----5-----+ 0	의기 소침?
고통 호소 정도? 10 +-----5-----+ 0	고통 호소 정도?

2) 질문에 의한 진단

삶을 긍정하는가? 10 +-----5-----+ 0	삶을 부정하는가?
삶의 의미에 대해 10 +-----5-----+ 0	후회하고 있는가
가장 존경하는 인물 10 +-----5-----+ 0	없다
가장 중요한 인물 10 +-----5-----+ 0	없다
지금 두려운가 10 +-----5-----+ 0	두렵다
문제에 대한 상담자 10 +-----5-----+ 0	없다
용서의 마음? 10 +-----5-----+ 0	미움의 마음
화해하고 싶은가 10 +-----5-----+ 0	없다
질병 현실 인정? 10 +-----5-----+ 0	부정(거부)?
종교의 도움 10 +-----5-----+ 0	필요 없다
기도 능력 믿나? 10 +-----5-----+ 0	않민는다
죄의식 유무? 10 +-----5-----+ 0	죄의식?
사후에 대한 비존? 10 +-----5-----+ 0	없다
절대자에 대한 이미지 10 +-----5-----+ 0	관심 무
종교심 유무? 10 +-----5-----+ 0	종교심 유무?

5. 영적 돌봄의 구체적인 접근 지침

임종환자들은 그 누구나 예외 없이 '평안한 생의 마감'을 원하고 있다. 그러나 그것을 방해하는 다음 두 분야의 장애 요인이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해 주면 '편안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다음 두 그림은 임종환자의 죽음에 대한 두려움의 문제와 그것의 영적 돌봄의 접근지침이다.

가) 일반적인 문제

두려움에 대한 문제(전우택)	영적 돌봄의 방향
사후의 미지에 대한 두려움	죽음도 삶의 연장선에 있으며/'창조주 하나님이 영원을 다스리시는데 오늘 나의 삶을 섭리 하심과 동시에 죽음 이후의 영원한 세계도 섭리 하신다'는 신앙이 죽음 이후를 낫설게 하지 않기 때문이다. 현세에서의 삶이 바로 내세의 삶으로 지결된다. 현세에서의 살림은 내세에서도 살림의 삶으로 연결된다. 따라서 현세에서 한점 부끄럼 없는 살림으로 산 사람은 저 세상에 대해 두려울 필요가 없다.
단절, 격리의 두려움 (가족과 친구)	임마누엘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부활 신앙
신체에 대한 고통	고통도 하나님의 일하심의 한 표현이다/통증에 대한 느낌은 극히 주관적이라는 사실이다. 따라서 삶의 스타일에 따라 통증에 대한 감각도 차이가 있는 것이다. 의료기기에 의해서 객관적으로 측정된 동일 분량의 통증이지만 긍정적 스타일의 사람에게는 덜 고통스럽게 느껴지고, 반면 부정적 스타일의 사람에게는 큰 고통으로 느껴진다는 사실이다.<사례>
주체성 상실	내안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죽음 너머에서도 함께 하신다는 신앙. (애벌레)/
과거에 대한 죄책감	십자가의 피공로로 우리의 과거는 모두 용서 받았었다는 은혜의 복음/ 지나온 일생을 총정리한다는 의미에서 '나 자신'(하늘을 우러러 자신을 성찰), '이웃과의 관계'(미워하거나 상처를 입히거나 마음의 빔등을 정리하여 사랑과 용서관계로 화해), 그리고 '하나님과과의 관계'(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에서의 정리가 요구된다. 이러한 정리는 죽음을 넘는 환자의 무거운 인생 짐을 가볍게 만드는 작업이다. 이러한 정리가 잘 될 때 환자는 자기의 지내온 생에서 비롯된 복잡한 문제들을 깨끗이 털고 죽음의 언덕을 편안히 넘을 수 있게 된다.

나) 영적인 문제들

영적인 문제들 (노유자)	영적 돌봄	방법
생의 목적에 대한 회의 (존재의 의미, 스스로를 과소평가함)	- 선한 뜻에 의해 보냄 받은 천하보다 귀한 생명 - 긍정적인 생각과 자기의 장점을 성찰하게 함. - 지난날 긍정적인 것들을 회상시켜 주고 의미 있었던 삶이라고 격려해 준다	*함께 있어 줌
절대자에 대한 분노 (하나님과의 관계)	- 하나님은 선하시고 신실하심. -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 끝날에 좋은 것 주심에 대한 신앙. - 그 과정에서 잠시 겪는 시련을 믿음으로 승리	1.말씀으로 (by word)
고통의 의미에 대한 질문	- 고통은 원죄로 인해 주어진 것. - 인간은 누구나 고통하며 살도록 명령받았다. - 하나님은 고통을 주는 분 아니고, 고통 속에 함께 함. - 고통은 살아 있음의 증거이다. - 다만 고통을 대하는 인간의 자세가 문제이다. - 고통(pain, 현실적)과 고난(suffering, 의도적)	2.기도로서 (by prayer)  3.접촉으로서 (by touch) (여기에 성례전 포함)
신앙에 대한 내적 갈등	- 내가 지금까지 제대로 믿어 왔나? - 사후에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설 수 있을까? - 만일 내가 다른 종교를 믿었다면 어땠을까?	4.일반적인 여러 방법 들로서 (by means)
화 잘 내고 울기도 잘하고 우울함 (부정적 삶)	- 신앙은 긍정적인 삶의 스타일. - 임종 환자의 심리를 충분히 공감해준다. - 마음을 따뜻하게 해 주는 대화를 나눈다. - 유머어를 많이 구사할 수 있으면 좋다.	(J.Wilkinson, Health & Healing, chap. 6)
질병을 정벌로 생각함.	- 질병은 구원의 위기이다. (구원 향해 열려 있음) - 살아 있는 인간은 누구나 질병을 앓을 수 있다. - 질병은 의료인에게만이 아니라 공동체적 책임	

이렇게 해서 임종환자의 부정적(불신앙)인 마음 받을  
긍정적(신앙)인 스타일로 바꾸어 놓는 작업은 영적  
돌봄의 결정적인 분야라고 할 수 있다.